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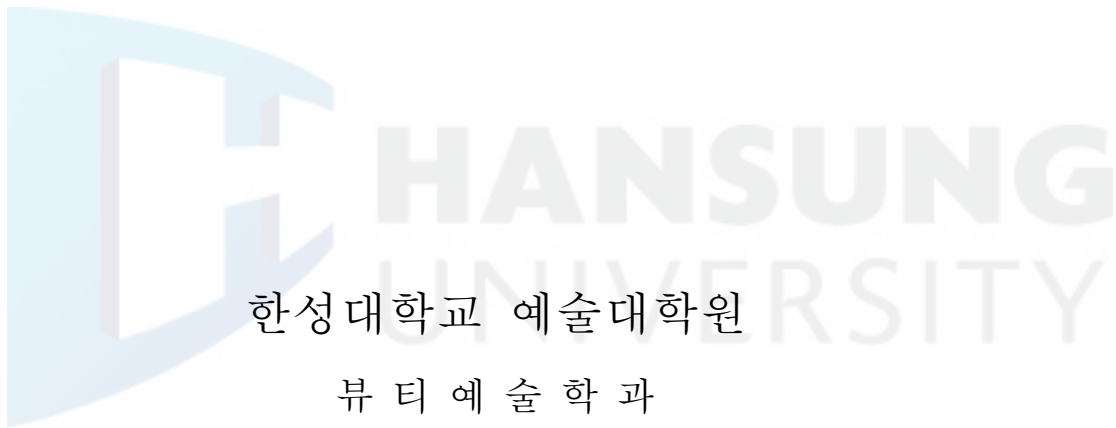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피부미용 범주안의 서비스 유형별
정의에 관한 고찰

-객체지향적 방법을 활용한 개념 정의-

2013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강 춘 구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민정

피부미용 범주안의 서비스 유형별
정의에 관한 고찰

-객체지향적 방법을 활용한 개념 정의-

A Study of the Definition of Skin Cosmetic Treatment by
Service Type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강 춘 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민정

피부미용 범주안의 서비스 유형별 정의에 관한 고찰

-객체지향적 방법을 활용한 개념 정의-

A Study of the Definition of Skin Cosmetic Treatment by
Service Type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강 춘 구

강춘구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피부미용 범주안의 서비스 유형별 정의에 관한 고찰 -객체지향적 방법을 활용한 개념 정의-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강 춘 구

피부미용은 피부를 대상으로 도구나 손을 이용한 관리를 행함으로서 인간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추구하기 위한 학문적 영역이자 치유법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심신의 만족을 얻기 위한 본능적 욕구에 의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랜 역사를 두고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다.

최근 피부미용 분야가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 산업생산성이 급증하면서, 피부미용의 학문적 가치와 건강과 미용적 효능의 상승을 위한 연구개발이라는 본질적인 면은 경시하고, 처방이 어떤 직업 집단이 행해야 할 행위인지와 처방 보조 기구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핵심적 쟁점이 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피부를 개선시키고자 처방하는 방법과 사용기기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를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시켜 전문가인 피부관리사조차도 피부관리 처방행위에 대한 영역별 제한을 받고 있어 피부미용 분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의료 행위의 여부에 따라 처방 행위자가 피부관리사가 행해야할 지 의사가 행해야할 지를 규정짓고 있다.

피부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 피부관리 도구로 사용할 기기는 어떤 기기와 어떤 용량까지로 할 것인가, 피부에 도포할 물질이나 화장품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등 정의해야 할 것이 많다. 이러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학문이나 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불필요한 갈등

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특히 이를 법률적으로나 학문적 규정을 통해 명확한 정의와 각각의 처방 행위에 대한 범주와 방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너무 포괄적이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법 조항으로서 기존 방식의 표현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피부미용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정보처리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객체지향적 방법을 적용하고 피부미용의 표현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피부관리의 정의, 업무 영역과 처방 방법, 각 처방의 분류와 연관 관계, 효능 등에 대한 개념 등을 하나의 실체적으로 객체화하여 속성과 속성값을 통해 명백히 구분하고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피부미용의 영역별 특징을 속성값으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피부미용 각 개념이 객체로 표현된다면, 객체의 상하 포함관계와 연관성을 통해 피부미용 모든 분야의 처방 유형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계수적으로도 표현 가능할 것이다. 피부미용 서비스 유형에 대한 표현방식이 현재는 개인별 기관별로 주관적 관점에 의해 다르게 명명 표현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객체지향적 방식을 적용한다면, 객관적 관점에서 표준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처방 영역의 표준적 규격을 규정지을 수 있고 영업 현장에서의 가격 설정, 기술적 평가에서 공통적인 부분과 고유적인 부분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주요용어】 객체지향적 피부미용 정의, 피부관리 분류, 피부미용 범주, 피부미용 정의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관련 연구 조사	6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제 1 절 피부와 미용	10
제 2 절 피부관리 정의	12
제 3 절 피부관리 절차	14
제 4 절 피부미용 산업과 피부미용학	18
4.1 피부 미용 산업의 현실	18
4.2 피부 미용학과 관련 연구	22
4.3 피부미용 관련 전문 용어	23
 제 3 장 본 론	26
제 1 절 피부 미용 관련 개념	26
제 2 절 자의적 개념 정리의 문제점	30
제 3 절 피부 미용 개념 정의	32
제 4 절 피부 미용 분류	35
4.1 도구 및 서비스	35
4.2 발생지(창시자, 시대) 및 서비스	35
4.3 부위 및 서비스	35
4.4 학문(이론) 및 서비스	36
4.5 연상어 및 서비스	36
4.6 목적 및 서비스	36

4.7 발생지(창시자, 시대) 및 부위와 서비스	36
4.8 기타	36
 제 5 절 서비스 종목의 특징 표현 위한 속성	39
5.1 부위적 관점	40
5.2 시술적 관점	40
5.3 치유적 관점	40
5.4 도구 방법적 관점	40
5.5 목적별 관점	41
5.6 보조환경적(부가적) 관점	41
5.7 연계적 관점	41
 제 6 절 객체지향적 표현을 이용한 피부관리의 개념 정의	43
6.1 객체지향 개요	43
6.2 객체지향적 표현	45
6.3 객체지향적 형식의 피부관리 표현	46
6.3.1 속성 표현 형식	47
6.3.2 행위 표현 형식	48
 제 4 장 결 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63

【 표 목 차 】

[표 1] 아날로그식 표현과 디지털식 표현	40
[표 2] 기존정의방식과 객체지향정의방식	49
[표 3] 피부미용 정의를 위한 객체와 속성 및 속성값	50

【 그림 목 차 】

<그림 1> 윈도우의 객체지향적 구조	47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의식주이다. 의식주는 양적인 충족을 채우기 위한 본능에 가까운 노력이다. 이 기본 생활이 충족되면 인간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욕망을 가지게 되는데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열악한 환경 탓에 좁고 굶주린 생활이 이어지다가 도구의 힘을 빌려 배부르고 난방을 이용한 생활이 되었고, 이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더 큰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이 무한한 욕망을 충족하고자 인간은 연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게 된다.

이런 욕망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유지하며 살고픈 희망이다. 아름다운 육체를 갖기를 소망하고 이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간 본능의 하나이다.

식욕, 성욕과 아울러 화장의 욕구는 인간이 가진 본능적 욕구로 인간은 태고적부터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을 수정하여 감추고자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하병조 외 4인, 2002: 9).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 대부분 여성들의 소망이자 모든 인간의 바람이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소비계층을 형성하며 신체적 건강과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욕구를 통해 더욱더 전문화, 고급화,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웰빙(Well-being)’이라는 문화코드를 통해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김상인, 2008: 1).

21세기는 ‘외모지상주의’ 시대로 불리어 지고 있는데 외모를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키울 뿐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손현

진, 2008: 1).

특히 여성에게는 신체의 일부분인 피부의 건강이 다른 신체 부위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고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올바르게 못한 피부 관리 방법은 오히려 피부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피부 손상의 위험을 줄이고 피부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다(명은진, 2001: 1).

현재 피부관리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고 문제성 피부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소득수준의 증대로 인하여 점차 보편화 되어 가는 추세다(심민자, 2005: 2).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2007년 4월 5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용은 일반미용과 피부미용으로 나뉘어져 시행되었다. 또한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제도가 마련되었고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8만 명이 넘는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 시험 취득자가 배출되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1). 이렇게 피부 미용 산업이 급속히 팽창한 관계로 경쟁이 더 치열해 졌고, 기술적으로나 서비스차원과 경영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하면서 점점 세분화, 전문화, 고급화 되어 갔다.

피부미용 산업에서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자연친화적인 관리와 새로운 대체요법 개발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즉 기존의 육체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던 단순한 피부관리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관리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요법이 주목받게 되었다(고혜정, 2004: 32).

미용을 위한 피부관리가 전문 기술의 발달로 대체요법과 결합하여 건강 유지까지로 처방 범위가 확대됨으로서 다른 직업군들과 충돌이 빈번해졌다. 그러나 환경이 급변하였는데도 피부미용이 사회적 인식상 비중이 낮게 평가되고 독립적 영역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은 제도 및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사회적 여건상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법적인 미비점으로 혼동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률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할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조수경은 석사학위논문(2011: 27-28)에서 피부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피부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부분에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업무 범위에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을 분리한 데서 나아가 상위법에 피부미용업을 별도로 정의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업을 정의에 제정하지 않고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미용업과 분리, 업무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제안에서는 신설 조항으로 ‘피부미용 업무란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클렌징, 각질제거, 팩, 화장품의 효과적인 흡수를 위해 피부를 마찰하거나 문지르는 행위 등)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피부미용사의 업종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뷰티누리, 2011.07.27). 이를 뒷받침할 법안으로 뷰티산업진흥법안을 2011년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가 미용업법안(2009년 5월 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뷰티산업진흥법안(2011년 2월 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미용사법안(2011년 5월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합병한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결했다.

이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법안 내 정의는 ‘이·미용기기란 얼굴, 머리, 피부, 손·발톱을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중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에 이·미용기기 신설에 따라 법안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금지, 의료기기 보관 등 금지, 유사의료행위 금지 등의 단서조항을 올려놨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보건의타임즈, 2011.11.17).

대한의사협회의 시위에 대항하여 반대의사 표시로,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국회 정문 및 각 출입문에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조수경 회장은 “1인 시위는 뷰티산업진흥법안을 지지하는 하나의 의사표현이자 응원메시지다”며 “의료계가 35만 피부미용인의 시술이 선풍기아줌마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말했다(미용경영문화연구원, 2011.11.22).

법안에 포함된 미용기기 등에 대한 견해 차이만으로도, 피부미용인들이 의사협회와 충돌이 발생한 것과 같이, 피부 관리 처방에 포함되는 마사지를 두고 안마사들과 마찰도 생겼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3월 11일자 공문을 통해 “피부미용실 등에서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한 불법적 안마행위를 하는 다수의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자격자의 안마행위에 대한 단속협조를 요청하자,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차별인 단속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복지부에 보냈는데, “복지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피부관리 산업의 발전 저해와 합법적으로 피부관리를 하고자 하는 피부관리사들의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고하시어 무차별적인 단속을 자제하여 달라는 호소문을 기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망하는 바입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각종 마사지와 수기요법을 합법적으로 하고자 하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의지와 뜻을 담아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82조 1항 외 사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라며 “복지부의 단속요청 건은 피부관리, 마사지, 스파, 각종 서비스 산업의 발전 저해는 물론, 관련업종에 종사를 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에스더안, 2009.04.20).

이러한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중심의 단체 등에서는 2010년 7월 29일 안마사법이 합헌 결정이 된 것을 근거로, 정상인이 마사지를 하면 의료행위로 보고 불법으로 간주하며, 의료법 제 27호 제 1항을 내세워 이를 위반시 무면허 의료 행위라 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의료법 82조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 요

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안마사의 관한 규칙 제 2조)라는 법조항으로 시각장애인인 아닌 일반인이 정당한 마사지를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이익단체와의 충돌로 마사지라는 용어 사용 및 피부미용기기 사용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피부미용 산업현장의 업무가 축소되었다(조수경, 2011: 1).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부미용인들은 다른 단체들과의 분쟁에서 대응할 논리적 근거를 학문적으로 마련하고, 피부 미용 분야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피부 미용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고 각 서비스 분야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용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피부미용을 정의하고 분류한 일차원적인 기존 정의 방법을 보완하여 객체지향적 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표현방법과 객체지향적 표현방법의 비교를 통해 객체지향 방법의 효율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정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의 전문용어도 그 전문분야에 따라 사용되면서도 다른 여러 전문용어들과 복잡한 관계 속에 얽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휘를 여러 기준에 따라 관계되는 어휘들을 하나의 틀로 묶을 수가 있는 데 이렇게 묶음으로 하여 그들의 성질이 더욱 명백히 나타낼 수 있다(김광수, 2002. 12: 152).

피부 미용 용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그 특성에 따라 유형 구분하는 용어와 개념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용어의 개념을 밝히고 그 목적 및 사용 범주를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용어개념 정의 및 분류 관련 사례를 그 내·외형적 특성에 따라 크게 유의어 사전류와 분류형 시소러스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그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색인과 검색 등 미용 지식의 정보처리에 필요한 용어분류를 위한 유형과 특성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된 용어를 바탕으로 법률이 기술되고, 규범과 피부미용의 기술이나 처방이 서술되어야 한다. 법률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만 자의적 해석에 의한 분쟁을 막고 당사자에게 억울하게 당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제 2 절 관련 연구 조사

피부 미용 산업이 팽창하면서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피부미용에 관련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쌓여 왔다. 피부미용에 관한 연구는 이 분야의 학자들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의학이나 간호학, 대체의학, 보건학, 식품영양, 화학, 생물학,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등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이중 미용관련 학술지에 발표되거나 피부미용 종사자, 연구자들의 논문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단순한 피부 관련 분야나 피부 미용 산업의 개괄적인 연구와 교육과정, 자격제도, 피부미용사 직업 관련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점차 세분화 되면서 피부미용의 기술적인 연구 및 피부 관리를 통한 효능적 연구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었다. 피부의 치유적인 분야, 화장품 등 미용재료 분야, 미용기기 분야, 비만 관리 분야, 음악테라피 등 환경적 분야, 자격증 등 교육과정 분야, 법률 등 사회 환경적 분야, 고객 심리 분야, 피부 관리 업체 경영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피부미용 분야의 개괄적인 연구로는, 홍재기의 피부미용학만의 고유한 지식체계를 구체화에 관한 연구(홍재기, 2009: 385-395), 김경실의 한국과 중국의 문화속에 나타난 미용에 관한 연구(김경실, 2005: 147-162), 김봉인의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 태도와 실천 연구(김봉인, 1999: 123-166), 정연구의 한국 미용 정책의 변천 과정 연구(정연구, 1998), 김민정의 피부 미용 산업의 확산을 위한 남성피부미용사의 필요와 역할 연구(김민정, 2006), 강영미의 미용산업 경영동향에 관한 연구(강영미, 2009), 제갈명의 피부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제갈명, 2003), 최외숙의 피부미용사의 만족도 연구(최외숙, 2011), 이현진의 비만관리 실태 연구(이현진, 2011), 정소명의 여대생의 피부상태와 자아존중감 관계 연구(정소명, 2007), 이민영의 여대생의 미용 관리 행동 연구(이민영, 2009) 등이 있다.

피부의 일반적 특성 연구는 대부분 의약 계통 전공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결과를 남겼다. 피부미용과 관련된 연구로는, 강수경의 안면피부상태와 관련요인 연구(강수경, 2004) 등이 있다.

자격증, 교육 관련, 미용법 등 사회 여건에 관한 연구로는, 이한웅과 이

유미의 한국과 일본의 미용사 면허제도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여 고찰한 연구(이한웅, 이유미, 2010), 김동훈의 미용 제도 개선 연구(김동훈, 2012), 조수경의 피부미용 관련법 제정의 당위성 연구(조수경, 2011), 배현숙의 피부미용사 면허요건, 업무범위, 기기사용에 등 피부미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배현숙, 2011), 차의진과 안홍석의 우리 나라와 유럽의 피부관리 자격증 제도를 비교 연구(차의진, 안홍석, 2011), 이수빈과 박철호의 미용 박사과정 교육에 관한 연구(이수빈, 박철호, 2011) 미용기술기능사 국가기술 자격검정에 관한 김덕성(2000), 강연수(2000), 류연옥(2010), 서희원(2003), 최은정(2009)의 연구, 미용사법 제정 연구는 송연숙(2004), 위보라(2009) 등이 있다.

미용 기기와 화장품 등 첨가물의 효능 연구는 실험을 검증하는 형식의 연구가 많았다.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아로마 등 첨가물 등의 효능을 비교하는 연구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 정보연과 김은화(2010)의 국제 기능올림픽 ‘뷰티테라피’에서 허용한 기기들과 국내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을 분석해 국내 피부미용실의 허용기기 사용을 실증적으로 제안한 연구, 고혜정(1996)의 외제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피부적 합성 연구, 전원혜(2008)의 화장품 구매 형태 연구 등이 있다.

피부관리의 효능과 치유적 연구로는, 이성내의 여드름 관리 연구(2003), 이인희의 반사욕 연구(2007), 장순심의 마사지가 스트레스 관계 연구(2007), 박경순의 수기요법과 피부표면 온도변화 관계 연구(2006), 남향숙의 마사지와 피로물질 및 스트레스호르몬의 관계 연구(2010), 유정아, 강경호, 김수미, 임미라의 귀온열요법과 귀마사지 연구(2010), 강경호의 발 관리 연구(2006), 채수형, 유미영, 강경호의 발마사지와 스트레스 관계 연구(2007) 등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성 있는 여러 연구 내용을 조사한 결과, 미용 분야에서 자격증이나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많았으나 본 연구와 부합되는 피부미용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미미하게라도 관련된 연구로는, 미용 용어에 관한 연구로 김재현 등의 미용 용어의 한글화 연구(2010), 이재형과 송인영의 미용과학 용어 연구(2002), 대한피

부과학회의 1993년과 2006년 피부과학용어 집필, 김무영의 미용 용어 연구(2004), 문혜진의 교과서 상의 미용 전문 용어 연구(2012)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용어의 사전식 의미를 정의하는 관점에서의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용어와 분류 연구로는, 최정희의 의학 문헌 분류 연구(2000), 백지원의 용어 관계 분류 연구(2005), 정두영의 한의학 분야의 비위론 용어 분류 연구(2009), 백지원의 용어 분류의 비교연구(2002), 정진철의 학문의 분류 연구(2008), 장두석의 상품 분류 연구(2008), 조광현의 산업 분류 체계 연구(2004), 정영현의 직업훈련분류체계 연구(2010), 한양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정보통신 분류 연구(1999), 김창환의 학문 전공 분류 연구(2001), 김병수의 건설정보분류체계 연구(2002), 박용부의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연구(2009), 고세영의 이기종 상품분류체계 통합 연구(2003), 서형식의 정보산업 분류체계 연구(2003) 등이 있다.

객체지향 방법의 연구로는, 김유경의 한글의 구문 구조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객체 추출방법 연구(1994), 장주현의 유사성 계산 연구(2009), 강성희의 의미를 정의하는 방법 연구(1995) 등이 있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 동안 이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피부와 미용에 관한 기본이론, 피부관리의 정의, 피부관리 절차, 현재 우리 나라의 피부미용 산업의 실태, 피부미용학과 피부미용 용어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문용어의 연구와 피부미용 정의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제3장에서는 피부관리의 정의를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한 객체지향적 정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의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객체지향적 정의가 다차원적인 관점에서의 디지털적 정의 방법으로 정확한 정의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제4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으로 본 연구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 계속해야 할 후속 연구에 대해 언급하였다.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피부관리 관련 서비스 분야의 정의에 관한 명명 근거와 분류를 분석해 보고, 현재의 방법으로 명확한 정의가 가능한가를 실제 구현해 보았다. 기존의 정의 방식으로는 개념의 표현이나 업무 영역 등을 규정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이나 문헌정보 등 타 분야 학문에서의 전문 용어에 대한 연구 방법과 결과를 참고하였다. 정보처리 분야의 주요 이론인 객체지향적 방법에 기반하여, 미용 분야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식을 적용하여 정의한 것과 기존 방식으로 정의한 것과의 차이를 실제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 객체지향적 정의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피부와 미용

피부는 몸통 전체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로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인체의 가장 겉면에 존재한다.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호 기능으로 체액의 보존과 자외선을 포함한 외부의 물리적인 인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면역학적 방어기제를 통한 보호 기능 등을 갖고 있다(강수경, 2004: 1). 또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여 내부 장기와 그 밖의 체내기관을 보호해 주고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며, 사람이 살아온 연륜을 가리키는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김명숙, 2006: 3). 피부는 전신을 피복하여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이나 장애 혹은 건조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성인의 전신 면적은 약 1.6 m²이다. 피부 두께는 연령, 성별, 부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눈꺼풀이 가장 얇고 손바닥, 발바닥이 가장 두껍다(김주덕 외 5인, 2004: 27).

피부표면은 육안으로 보면 평평한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나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복잡한 그물 모양의 구조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부에 올라와 있는 언덕부분을 소릉(hill)이라 하며 낮은 부분을 소구(furrow)라 한다. 젊은 피부일수록 소릉과 소구의 높낮이 차이가 적어 피부결이 고우며 반대로 높낮이 차이가 클수록 거친 느낌을 준다(이정옥, 2002: 17).

표피와 진피 및 피하조직으로 구성되며 표피는 겉면에서부터 각질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의 순서로 네 개 층으로 존재하고 있다. 각질층은 수분과 유분으로 이루어진 피지막으로 덮여 있으며 피지막은 피부의 건조를 막아주는 동시에 수분을 끌어들이는 친수성이 있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해준다(이승헌, 1995: 38-45). 각질층의 탄력성이 유지되려면 10% 이상의 수분함유가 필수적이다(강수경, 2004: 3). 건조한 피부는 표피상부의 수분함량이 정상이하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피부표면이 거칠고, 주름이 발생되며, 각질 세포가 탈락되는 임상양상을 보인다. 피지는 알칼리를 중

화하고 유해물질의 침입을 막으며 살균력이 있고 피부 건조를 방지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며 피부의 수분 보유량을 조절해 주므로, 피지 생성 정도는 피부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강호정, 1993: 890-895).

피부표면 지질은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와 각질형성세포에서 유래된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피부표면 지질은 피부의 건조를 막아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유해물질의 흡수를 막으며 여러 가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김천상, 1992: 47). 피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연령, 기후, 계절, 등의 외부환경과 수면, 화장품 사용, 식생활 등의 일상적인 습관,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요소, 피부병과 내과적 건강 장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피부상태는 항상 변화할 수 있다(김명숙, 2006: 69). 안면의 피부 상태는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관심사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 및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에 따라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강수경, 2004: 4).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관리가 필요한데 안면 피부 관리는 특히 미적인 요소를 많이 추구하며 몸통 팔다리 등 전신적 피부관리는 체형 가꾸기를 통한 미적인 면도 있고 건강을 위한 피부관리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절 피부관리 정의

피부관리 시 통상적으로 ‘마사지를 받는다’고 말하는 일련의 피부관리 행위는 단순한 손 기술에 의한 마사지뿐 아니라, 피부관리실에서 행해지는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방법으로서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대상으로 하여 피부 클렌징, 각질제거, 영양투입, 피부보호, 피부분석과 피부상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상인, 2008: 6).

에스테틱(esthetic)이란 말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독일의 미학자 바움칼텐이 ‘美는 인간에게 만족과 쾌락을 주는 대상이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감성의 미학적 차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차영애 외 4인, 2001: 15).

코스메틱이란 그리스어 ‘kosmos’에서 유래된 말로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인간의 美로 실현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코스메틱은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미용상의 제반문제들을 방지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를 가꾸게 해 준다는 뜻으로 사용한다(김기연, 1993: 21).

피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명칭은 각 나라별로 다양하다. 미국은 스킨케어 스페셜리스트(skin care specallist), 프랑스는 에스테틱(ethetique), 독일은 코스메티테린(kos-metiterin)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피부 관리사라고 하며 피부 관리를 가르키는 용어도 코스메틱(cosmetik)이 일반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황정원, 1998: 215).

피부관리도 단순히 피부 보습이나 유연성의 호전에만 중시하던 것을 벗어나 최근에는 효능을 위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주류를 인정하는 화장품제조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부관리도 트리트먼트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차영애 외 4인, 2001: 16).

피부관리는 성형수술이나 주름제거수술 등과는 달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지닌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켜 젊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 것(김문주, 2000: 124)으로, 이를 위해 마사지 혹은 손을 이용한 마사지(hand technique,manipulation)

또는 초음파기나 저주파, 고주파기와 같은 미용기기(electro-esthetic)를 사용하거나 앰플이나 마스크, 팩 등 개인의 피부타입별 전문 화장품을 사용한다. 심리적인 내면 미용법, 식이요법 등도 피부관리에 포함된다(김상인, 2008: 6).

피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연령, 계절, 환경, 생활조건 등에 의하여 변화 되어 간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주름살, 피부탄력 저하, 건조 등의 미용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별 피부 타입에 맞는 올바른 손질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신의 피부를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피부미용 혹은 피부관리이다(김상인, 2008: 6).

따라서 현재 피부관리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고 문제성 피부를 해결하기 위한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소득수준의 증대로 인하여 점차 보편화 되어 가는 추세다(심민자, 2005: 2). 넓은 의미의 피부관리는 전문 관리실에서 행해지는 전문관리(shopcare) 뿐 아니라 고객이 가정에서 행하는 개인관리도 포함하며 고객의 개인관리(homecare)에는 전문 피부 관리사가 고객에게 정확하게 피부 미용지식을 전달하고 가정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포함하게 된다(김상인, 2008: 7). 피부관리란 그 의미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행위가 아닌 일시적 관리(care)로써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일상의 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름다움을 위한 피부 관리는 과거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얼굴에 바르는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아름다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피부 관리로 건강관리와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념이 보편적이며(이혜원, 2009: 1), 피부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화장품을 통해 피부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한다든지, 또한 마사지를 한다든지 하는 외부적 접근방식이 있다(고혜정, 1997: 1-3).

제 3 절 피부관리 절차

피부관리에 앞서 어떤 방식, 무엇을 사용할지, 어떤 것을 주 개선점으로 할 지 등 피부관리의 목적을 위해 피부관리에 앞서 피부의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 사람의 피부구조는 모두 동일하나 사람에 따라서 다른 피부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잘못된 피부 관리는 피부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부 유형을 정확히 알고 피부미용과 피부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이은영, 2006: 1).

개인별 피부의 특징을 분류하는 요소로는 피부색, 피부거칠기, 온도, 피지량, 피부 pH, 피부표면 관찰, 중화능 등이 있다.

피부 유형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최은영의 연구(최은영, 1998)에서는 피부의 두께와 조직상태, 모공크기, 피지상태 등을 피부관리사가 시각적으로 외형을 직접 관찰하여 피부 유형 상태를 건성, 중성, 지성 피부로 구분하였고, 김정희와 정원정의 연구(김정희, 정원정, 1999: 20-29)에서는 대상자들의 피부유형을 우드램프와 확대경 및 촉진과 견진에 의해 피부 조직의 입자, 모공의 크기, 혈액 순환, 피부의 색소 침착, 여드름성 요소, 지방의 함유량, 보습량, 긴장감 및 탄력성, 보습 함유 세포, 피부의 각질화, 예민성의 정도, 피부의 두께 등을 확인한 후 모든 결과를 최종적으로 지성피부, 중성피부, 건성피부, 복합성피부, 여드름피부로 분류하였다(강수경, 2004: 4).

여러 주장들을 요약하면, 피부 측정 방법은 조직의 입자, 모공의 크기, 혈액순환상태, 색소침착 상태, 안색상태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견진법과 만져보거나 눌러봄으로써 피부의 탄력감이나 부드러움, 매끄러움이나 거칠음, 조직의 두께 등을 관찰하는 촉진법,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의 연령, 직업, 병력, 환경, 성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문진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방법을 복합해서 사용한다. 또한 피부 유형은 중성피부, 건성피부, 지성피부, 복합성피부, 민감성 피부, 지루성피부, 모세 혈관 확장 피부,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등으로 구분되며, 건성피부도 세분화하면 수분 부족 건성피부, 피지 부족 건성피부, 수분과 피

지 부족 건성피부, 피부표면 건성피부, 피부 내부 건성피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한 개인이 여러 특징에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의 피부 특징을 분석했으면 처방을 해야 하는데 개인별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찾고 그 요소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야 한다. 피부 손상의 가장 큰 요인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노화가 원인이다.

노화피부란 인체의 노화진행과 더불어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자연적인 변화를 말한다. 피부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생리적 노화, 외적 노화로 분류할 수 있다(김유정, 2001: 9). 인체는 끊임없이 세포를 만들고 노화된 세포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피부는 20세 이후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를 보이며, 보통 25~30세부터 노화 현상이 시작된다(안성구, 이승현, 2002: 150-151). 일반적으로 건성화된 피부를 방치하면 노화가 신속히 진행되며 피부가 노화되면 피지선과 한선의 기능이 퇴화되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형성된다. 또한 일광에 노출이 많은 안면이나 목덜미, 손등 등에는 피부가 딱딱하고 뻣뻣하며 깊은 주름이 보이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강한 태양광선을 받은 피부에는 이들의 변화가 특히 현저하게 된다. 주로 자외선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변화를 광노화라고 한다(김주덕 외 5인, 2004: 61-62).

노화피부의 관리방법은 조기 노화를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보습, 재생, 고농축 영양 관리를 하고 혈액순환 촉진을 위하여 마사지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를 하도록 한다(이혜원, 2009: 12).

개인적 피부의 특징과 노화의 원인, 트라블 요소를 통해 처방 방법을 정한다. 개인별 특징에 맞게 화장품 등 부가물이나 마찰 강도, 시간 등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한다.

미용을 주목적으로 할 안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 단계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피부관리 효과를 얻기 위해 얼굴의 모든 더러운 것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는 클렌징(cleansing)을 시행한다. 피부 자체에서 생리적으로 분리되는 피지, 발한에 의한 잔유물과 메이크업에 의한 이물질, 대기오염, 먼지 등의 더러운 요소를 가능한 한 완전히 피

부표면에서 제거하여 깨끗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사지, 사우나, 목욕, 팩 등으로 진피층의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드는데, 신선한 산소, 영양분을 피부에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자극 시술을 한다. 온수포를 이용하여 모공을 열어준 후 수분 팩이나 영양 팩을 해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클렌징과 자극으로 땀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로 얼굴피부에 크림과 팩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 땀구멍을 좁혀 주어 피부가 매끄럽고 탄탄하게 해주고 원래의 pH로 조정해줘서 메이크업을 잘 받도록 기초를 다진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환경과 신체의 대사변화로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보습 단계이다. 보습제는 피부상태를 조절하고 주름살을 막아내며 촉촉하게 만들어 수분부족으로 생길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예방해준다. 보습의 단계는 피부 가꾸기와 관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관리의 성공여부는 적절한 보습제의 선택과 사용에 달려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자외선의 차단 등 보호 단계이다. 피부의 탈수현상과 공해물질로 오염되는 것, 주름살이 생기게 하는 햇빛의 침투를 차단하는 것 등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복부나 전신 관리 등에서는 마사지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사지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가장 오래된 형태의 하나이다(남혜신, 2003: 25-26).

마사지는 고대 의학 기록에 따르면 본능적으로 다치거나 아픈 곳을 문지르고 두드리면서 상태가 호전, 치유되는 경험에서 시작된 원시적인 의료행위에서 발전된 것으로 매우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오정숙, 2007: 4). 원시시대부터 손으로 아픈 곳을 접촉하여 쓰다듬고 문지르는 등의 동작을 행함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질병을 치료했던 행위에서 출발해 지금의 피부미용 마사지에 이른 것이다(손현진, 2008: 1). 마사지는 치료 행위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의 미용마사지가 유래되었으며, 피부미용 영역에서도 피부관리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마사지는

시술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심리적 정신적 이완감을 제공하고, 접촉 그 자체는 공감을 전달해주는 의사소통의 형태라 할 수 있다(박경순, 2006: 1).

피부 관리 차원에서의 마사지는 피부 연조직을 자극하는 손의 움직임의 의미하며(Michelsen D, 1978: 1197-1199), 몸 전체의 각 조직에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술하여 신경계통, 혈관계통, 근육 등에 자극을 주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전신이나 몸의 일부를 두드리고, 주무르고, 문지르고, 눌러(압)주는 것을 말한다.

미용학적 측면에서 마사지는 피지 제거, 각질 제거, 노폐물 제거 등 피부의 세정작용을 도와 피부를 청결하게 하며 피부 결합 조직의 긴장도를 높여 탄력성과 노화의 지연, 억제에 효능이 있다(양현옥, 1995: 87). 마사지는 접촉을 통해 전달되는 기술로, 접촉 그 자체는 공감을 전달해 주는 의사소통의 형태이므로, 대상자와 시술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빠르게 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 깊은 대인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박미성, 서문자, 1995: 316-329).



제 4 절 피부미용 산업과 피부미용학

4.1 피부 미용 산업의 현실

피부관리가 얼굴에 화장품이나 바르고 미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마사지, 여드름 등 트러블 해소를 위한 행위, 사용하는 기구 등을 가지고 의료계, 안마종사자 등과 영역 문제로 여러 충돌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미용 산업이 급격히 팽창해 감으로서 사업영역의 다툼이 매우 심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피부미용 산업은 단순한 피부관리의 개념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관리, 영양관리, 건강관리 등을 통한 종합건강관리, 예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982년 피부관리사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이후 약 30만 여명의 피부관리사와 148,000여개의 피부관리실이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국내 피부관리 시장규모는 현재 약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이투데이, 2007.11.26.).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3월 7일 일본 표준 산업 분류표에 피부관리실이 독립된 형태로 기재됨으로서 산업으로서의 정식 지위를 획득하며 피부관리산업이 도입된 후 30년 동안 3조원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성장해 왔다(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 2003: 55).

우리나라의 피부관리실의 초창기에는 얼굴을 관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세분화, 전문화, 고급화가 강조되는 다양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바쁜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대중적인 샵(shop)의 형태에서 스파(spa)마사지, 태국마사지, 중국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발관리 전용, 비만관리, 데톡스(Detoxification)관리 등 세분화된 산업 형태에 대체요법이 접목되어 전문성을 강조한 샵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김상인, 2008: 6-7). 또한 2000년도 이후에는 홀리스틱(Holistic)관리로 얼굴과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관리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건강하게 살자는 웰빙(Well-being)트렌드와 대체요법이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장원정, 2004: 13).

국민의 소득향상과 빠른 해외정보의 유입, 인식의 변화 등으로 국내의

피부관리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으며 각 언론 매체에서도 21세기 유망직종으로 피부관리사를 손꼽고 있다. 국내 일반인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변화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피부관리 교육의 확대와 전국의 미용학원에서 피부관리 교육 개설을 늘리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이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됨에 따라 미용업계의 전문화를 더욱 도모하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피부관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비스 산업의 당당한 지위확보까지 이루게 되었다(김상인, 2008: 7).

미용 산업의 성장과 규모를 보면, 2008년 한국은행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피부미용관련 시장 규모는 매년마다 크게 성장하여 2007년도에 매출액 약 4조 586억 규모였으며, 최근에도 3년간 19% 성장하여 4조 586억에서 6조 7,007억 시장규모 확대(2013년)되었고 피부미용 산업 분야의 생산유발매출액이 7조 4,678억에서 12조 3,293억 (2013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순수한 부가가치 매출 금액도 2013년도에는 3조 7,339억에서 6조 1,646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엑스포뉴스, 2011.06.30).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피부미용 시장규모는 약1조7천억, 종사자 수는 5만5천명, 화장품 제조산업의 35%로 추산되며, 우리나라 여성의 피부관리실 실제이용 인구는 전체여성의 30.2%로 에스테틱 선진국인 일본의 비율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웰빙에 대한 관심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치가 높아지면서 피부미용 이용인구의 저변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 시장조사기관인 AC닐슨은 2007년 전세계 46개국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자신에게 투자하는 비용중 3명 가운데 1명은 스킨케어를 위한 지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시장의 규모는 매년 10~15% 성장함에 따라(골근위뷰티, 2011.08.10.) 시장 규모가 팽창하여 업무 영역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 등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미비한 점이 많다. 법률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이 명확한 규정을 묘사하려면 피부미용 분야의 전문 용어가 정리되어 이 용어를 이용해 관련 처방 행위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 또 피부관리의 여러 형태를 시행자의 주관적 입장의 명명이나 시행 방법을 객관적으로 정비하여 표준화가 요구된다.

현재 피부미용은 공중위생관리법(2조5항, 시행 2012.9.16)에서 다루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2항, 시행 2012.1.10)에서는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법제처, 2012).

① 미용업(일반):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②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이 법을 해석하면 현재의 제도에서 피부미용 업무범위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피부미용 산업체의 현실은 미용기기 사용과 화장품을 활용한 손 관리로 이루어져있다.

피부미용 산업의 발달로 뷰티시장도 과학화, 세분화, 전문화 추세에 있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대부분의 피부미용실이나 관리실이 미용기기를 사용하여 과학적인 효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용기기 분류법안 자체가 없는 현실에서 모든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피부미용인에게 판매하고 있어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관리를 음성적으로 하게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수경, 2011: 15-16).

이혜원의 연구를 살펴보면 피부미용을 받길 원하는 부위 순으로 피부관리시 얼굴관리를 원하는 여성이 38.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신이 27.6%, 복부 13.5%, 다리 7.5%, 등 7.6%, 팔 3.3%, 가슴 2.3% 순인데 현행 법규대로 마사지와 기기 사용을 못하면 얼굴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관리는 범법 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이혜원, 2009: 74). 류연옥(2010: 64-65)의 연구에 의하면 피부미용 고객들은 경락마사지, 얼굴 기기

관리 등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의 제도에서는 미용기기나 경락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체의 프로그램과 법제도하의 업무영역 괴리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피부미용 업무범위의 축소 및 경영의 위축을 가져옴으로 뷰티산업의 발전을 저해 할 것은 기정사실이다.

차의진의 연구(2011: 42-45)에서도 우리나라 미용사(피부) 현행제도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것 중 미용기기 사용규제 및 마사지라는 용어사용 금지 등을 들었다. 조수경의 연구(2011)에서는 피부미용사 업무 및 산업발전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법 제 2조 정의에 피부미용업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며 주장했다. 조수경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정의 (법 제 2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피부미용업 신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현행 미용업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용업이 일반, 피부로 나누어진 것을 상위법인 모법에서 미용업과 별도의 피부미용업을 신설해야 한다.

3. 모법에서 별도의 피부미용업이 신설되어야 시행령에서 업종별 세분화가 된 것이 명문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업종에 대한 시설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피부미용에 관련된 독립된 법률이 만들어 지고, 임상적 피부미용과 피부관리사의 처방 구분, 피부관리 마사지와 안마의 구분, 화장품과 의약품의 구분,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미용 도구에 대한 규정, 피부를 위한 건강 식품과 차 등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드름 치료의 경우, ‘피부관리사가 행하느냐 의사가 행하느냐’는 요건보다는 샵(shop)과 병원의 시설 요건 혹은 시술 방법이나 사용되는 용품 등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어야 한다. 개선이나 치료나 등 단순 용어로만 구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피부미용 행위조차도 제약 받게 되고, 피부미용학문과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4.2 피부 미용학과 관련 연구

피부미용행위에 대한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이어지지만 그것을 피부미용학이라는 학문으로 체계화시켜 실용학문으로서 대학에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도 이후부터이다. 그러하기에 피부미용학의 학문적 역사는 20년이 채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부미용학이 비교적 짧은 학문적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초학문에 바탕을 둔 실용학문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학문보다 독자성을 정당화시키고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피부미용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목적이 다른 학문과 분명히 구별되는 중점을 가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 피부미용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식체계가 있다면 독자성을 정당화시킬 뿐 만 아니라 실용학문으로서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대학에서 영역을 구축하고 발전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피부미용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목적의 독자성을 찾아내고, 피부미용학만의 고유한 지식체계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당면과제 3가지(첫째, 전공의 세분화를 통한 독자성 확립, 둘째, 기초학문을 피부미용학적으로 재해석한 교과목(교재)의 개발, 셋째, 피부미용관리사의 위상 확립)를 제시함으로써 피부미용학이라는 학문이 대학 내에서 독자적인 분과학문으로 영역을 구축하고 성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홍재기, 2009: 385-395).

피부 미용이 업무 영역을 정확히 확립되지 못한 것은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 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정확한 논리적 뒷받침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독립적 학문으로 자리 잡은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개념정의라든가 용어 정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미흡하다. 법규나 기술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기술 내용이 많다 보니 피부관리 종사자간의 내부적 갈등도 많고,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이 많다. 기술이나 처방이 행하는 사람의 주관성에 의한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용어 연구를 통한 명확한 서

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피부관리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4.3 피부미용 관련 전문 용어

어떤 국가나 사회든 산업과 학문, 문화의 발전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학문에서는 여러 지식 체계를 정리하고 조직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부미용 분야에서는 용어 연구가 다른 학문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앞 장에서 기술 조사한 것과 같이 용어 사전을 편찬하고 외래어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 분야의 전문 용어를 정리하고 이러한 용어간의 관계 구축을 위한 시소러스를 구성하고, 피부미용 각 분야 서비스 형태, 종류, 관련 물품 등에 관련된 전문 용어를 찾아내고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지식조직체계의 근간인 용어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정보화 환경에서 피부미용학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각종 용어관계의 사례와 용어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용어관계의 유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용어관계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존의 용어관계를 조직화하여 피부미용 분야의 전문용어를 정의하고 범주화해야 한다.

전문용어(terminology)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성, 유통시키는 용어로서, 비전문가 또는 타 분야 전문가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용어’라고 전문용어언어공학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되었다(김문오, 2001: 3-4). 그러나 이제 전문분야 만에서 사용되는 전문가만 이해하는 언어라고 할 수는 없다. 전문용어도 일반인에게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용어화 되었고, 관련 지식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함축적인 용어의 특징을 가진다. 일상 언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특수 전문 분야의 어휘로서 짧은 기간에 생성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개념이 변할 수도 있고, 인위적 조작에 의해 변경 생성되기도 한다. 의미적 다의성이 없이 단의어적이며, 다국적이며, 음성언어가 아닌 문자언어 중 명사에 한해 나타난다(최기선, 2000: 14-15). 또 전문 용어는 우리가 보통 통칭하는 일반 언어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특정 분야의 언어적 표현과 신변잡기적인 삶의 내용을 담은 언어적 표현 전체의 집합이다. 전문 언어는 일반 언어의 하위 언어(sublanguage)로서 특정 전문 분야의 의사소통 상황에 의해 특정한 의미를 갖고 일반 언어에 비해 딱딱한 문체적 특징을 갖는다(조은경, 서상규, 2001: 202). ‘전문용어’의 ‘전문성’ 개념과 ‘고유명사’의 ‘고유성’ 개념은 양자의 근본적 의미가 서로 다르면서도 외연의 일부가 겹쳐지는 교차 개념(유사 예: 용사와 군인, 아동과 학생)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전문용어 집합과 고유명사 집합 사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명칭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생기게 된다(김문오, 2001: 11).

분류란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한 기준에 따라 어떤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것이다. 분류는 하위 단위에서 상위 단위로 이동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대부분 언어 기호로 기술된다(박형익, 2001: 120).

지식을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나면 이러한 지식간의 분류와 결합도 중요하다. 어떤 대상을 분류하기 전에 분류의 목적에 따라 분류의 기준을 선정하게 되는데, 분류의 기준은 분류 대상들의 유사성을 토대로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분류의 기준에 따라 어떤 대상을 분류하면 그 분류의 기준에 의해 나누어진 개념들이 나타난다. 이때에 나누어진 개념들은 종속관계를 이루는데, 상위에 있는 개념을 유개념이라 하고, 하위에 있는 개념을 종개념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유개념은 나누어질 수 있는 개념이고, 종개념은 나누어진 개념이다(박형익, 2001: 121). 분류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다. 지식은 학문 영역의 연구 결과이며 다양하게 연결된 개념으로 구성된다. 지식은 언어 기호로 표현되며, 개념 체계에 따라 구조화된다. 따라서 개념의 성질, 개념 사이의 상호 작용 등을 이해해야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식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념은 분류의 기본 요소가 되며, 분류는 지식의 발전이나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된다. 분류는 모든 사고의 기반이며 실천적 도구이다. 분류가 없다면 인지과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류에서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개념은 감각, 지각, 상상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물이나 대상을 추상적인 범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개념은 ‘사고의 단위 요소’ 또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대상을 다소 임의적으로 추상하여 분류한 정신적 구성물’로 정의된다(박형익, 2001: 122).

분류는 지식간의 관계를 상하 균등 등을 도식화하고 지식을 체계화한다.

이 연구에서는 분류나 전문용어 연구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는다. 다만 피부미용 분야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전문용어나 분류를 포함해야 하므로 연관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제 3 장 본 론

제 1 절 피부 미용 관련 개념

미용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백지원의 연구(2005: 29-43)를 통해 제안하자면, 실제로 용어관계가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용어관계의 유형을 분석한다. 크게 피부미용학의 용어관계, 시소러스 구축 표준, 용어관련 표준, 용어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 각종 시소러스, 의미망과 온톨로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용어관계 등의 범주로 나누어 용어관계를 다루는 다양한 이론적·실제적 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등장하는 용어관계를 시소러스의 기본 세 가지 관계유형으로 범주화한다. 그리고 용어관계의 분류 모형을 설계하고 분류 방안을 제시한다. 분류 모형 설계에 있어서 동등관계는 완전동의 관계와 유사동의 관계, 반의관계로 분류한다. 계층관계 중에서 전체와 부분 관계는 그 하위 유형이 다양하고 연관관계와의 구분도 쉽지 않으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전체와 부분 관계는 물리적 관계와 비물리적 관계로 양분하고, 물리적 관계는 신체기관과 일반 사물로, 비물리적 관계는 지리적 위치와 학문분야, 계층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분류 모형을 제안한다. 이러한 계층적 전체와 부분 관계의 분류 모형은 하위에서 더욱 세분화 한다.

피부 미용의 서비스 분야나 처방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방법들은 주로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주관에 의지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해왔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 저자마다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연구자가 사용하는 용어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피부관리 샵(shop)을 구분하는 것을 보면, 대중적인 shop의 형태에서 스파(spa)마사지, 태국마사지, 중국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발관리 전용, 비만관리, 데톡스(Detoxification)관리 등 세분화된 관리실 형태에서 대체요

법이 접목되어 전문성을 강조한 샵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김상인, 2008: 8). 여기에 언급된 처방(서비스)을 보면 어떤 일관성 있게 명명된 것이 아니고 사용재료, 발생지, 부위 등 가장 강조할 특징에 의해 붙여진 이름(용어)이다. 또 처방 방법에 따른 테라피의 설명을 보면, 하이드로테라피, 스웨디쉬마사지, 발 반사관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이드로(Hydro)는 그리스 언어로 물이라는 뜻으로서 물의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을 사용하여 행하는 치료의 총칭으로서 물리요법의 일종이다. 수요법이 갖는 생리학적 작용과 부력에 의한 작용, 수압에 의한 한 역학적 작용 외에 온천욕, 해양요법 등에 있어서는 함유성분에 의한 생물학적 효과 등의 특이한 작용이 있다.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이들의 작용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실시되며 수중훈련, 하버드욕, 와류욕, 압주법 등이 있다(간호사학 대사전, 1997: 이춘양, 2008 :8에서 재인용).

스웨디쉬마사지는 서양에서 스웨덴의 Pir Henrik Ling(1776~1839)에 의해 19세기에 걸쳐 대중화 되었다. Ling은 생리학 지식을 이용하여 운동과 마사지를 결합하여 관리 동작을 체계화 시킨 스웨디쉬마사지를 전파하게 되었다. 스웨디쉬마사지는 궁극적으로 근육의 관절을 다스려 주면서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마사지이다(이춘양, 2008: 11).

발반사관리란 세포와 조직 그리고 내장기관에 에너지 또는 생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 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에 나타나 있는 반사부위를 규칙적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을 말한다. 반사부위를 마사지 해 줌으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우리 몸이 질병으로부터 저항력을 갖게 해주며 영양물질이나 산소를 세포에 운반하고 세포에서 방출하는 노폐물을 수거하여 수뇨관을 통하여 밖으로 배설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관리를 발관리, 발반사관리라고 한다(강경호, 2007: 147-148).

두피관리란 모발 생정의 근원이 되는 모공 주변에 쌓인 피지나 이물질, 노화 각질 등 샴푸로도 잘 세정되지 않는 잔여물을 스케일링(scalp scaling)제품이나 기자재, 수기 마사지를 이용해 제거해 외부로부터 영양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내부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제대로 분비되어 탄력 있고 윤기 있는 모발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

리를 말한다(김상인, 2008: 14).

음악요법이란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에 음악의 기능성을 이용하는 요법으로서 음악을 통하여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악을 인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음악을 이용하며, 특히 음의 강약, 장단, 고저, 음색, 화음 등의 일정한 법칙에 따라 인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요법이다(동인숙, 2006: 4, 7)

소리나 진동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음악의 청취나 대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감성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신체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음과 진동을 통하여 인체의 긍정적 생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요법을 사운드테라피라고 한다. 즉, 사운드테라피는 음악요법을 포함하는 요법으로서, 음 뿐만 아니라 소리와 진동의 강약, 장단, 주파수, 파형, 무게감의 법칙을 인체의 모든 피부 감각으로 수용하여 인체의 긍정적 생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요법이다(최나홍, 2007 :8-9). 이렇게 음악요법과 음악테라피가 구분되게 설명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음악요법과 테라피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음악의 잠재적인 가치가 음악요법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음악을 통해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 회복, 향상시켜 주며 신체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심장 박동수, 호흡률, 전기 피부반응, 뇌파, 근전도, 대뇌 반구의 움직임, 동공의 크기, 위장 반응, 피부 섬모움직임 등과 같이 생리적인 반응을 포함하여 음악을 통해 개인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피부미용 산업에서의 음악요법은 건강한 신체의 관리와 함께 정신적 건강관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음악이 인간의 생리, 심리에 미치는 기능적 효과를 이용하여 현대인의 병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과 일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또 다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음악장르 중 테라피 음악은 물, 바다, 바람, 새, 나무, 자연에서 추출한 순수 소재의 활용으로 인간을 자연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인체면역계의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가짐으로서 스트레스를 해소

함과 동시에 심리적 측면에서의 건강까지 포함한 자연친화적이고 전인적 테라피로서 각종 피부관리 방식에 활용되어, 문제성 피부관리, 스트레스 해소, 비만관리, 혈액순환촉진, 비만관리 등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악요법의 접목은 미래 피부미용 산업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상인, 2008: 3).

이와 같이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달리 정의하는 개념이 피부미용 분야에는 많아 통일적인 개념 정의와 용어 통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연구자가 새로운 방법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는 일 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서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여러 연구자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정두영은 ‘정보지식시대인 오늘날 학문적, 사회적 흐름은 한의학에 대해 통합과 표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개념(concept), 사실(fact), 관계(relation) 등의 지식의 구성요소의 체계를 이용하여 한의학 지식 체계를 표준적으로 정립하고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정두영, 2009: 1)’라 하며 시대에 맞는 한의학의 학문으로서 체계적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로운 학문을 독립적 영역의 학문으로 구축하려면 한의학의 예와 같이 그 학문의 대상, 영역, 특징 등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피부미용학도 연구 대상과 범주, 특성을 체계화하고, 이런 기반하에서 ‘피부미용학’이라는 학문의 특수성을 일반화된 현실 세계 속으로 재현이 가능할 수 있게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융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피부미용학에서 연구 축적된 지식이 피부미용학 영역뿐 만 아니라 타학문 영역에서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타학문과의 교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연구도 피부미용학의 체계구축을 위해 용어의 개념 정의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피부미용 분야의 용어 정의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다. 이는 학문의 체계적 연구를 저해하고 법률제정의 방해요소가 된다. 한 관점에서의 특징이나 유사 행위를 기준으로, 일부 변화만 주고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영역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초래되는 원인이 된다.

제 2 절 자의적 개념 정리의 문제점

제20회 국제휴먼(미용 & 건강)올림픽 대회 경연 종목을 살펴보면, 발에 관련된 분야로 발기공, 발관리, 족부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보면 이것은 피부관리 분야 중 발부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발기공은 발에 마사지나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을 활용하는 마사지 방법이다. 발기공은 워킹테라피라고도 하며, 블록과 지지봉 보조 도구로 사용하여 기존의 마사지를 발로 밟고 밀고하여 전신을 풀어 주는 방법이다(한국발기공, 2012).

발관리는 발마사지, 발반사라고도 하며, 발을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발바닥과 발등, 종아리에 분포되어 있는 반사구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며 오장육부의 활성을 도와주고, 내분비선의 균형을 도와 발을 아름답고 감촉 좋은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어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요법이다. 인체의 모든 기관은 발바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발이라 함은 인체의 축소판으로 보고 발에 분포하는 전신의 각 부위에 상응하는 지압점을 손가락을 사용하여 유연하게 자극하고 엄지 혹은 주먹을 이용하여 깊게 지압점을 자극하는 것이다. 단순히 누르는 것만이 아닌 훑어주기, 돌리기, 당기기, 밀기, 문지르기, 쳐주기, 비틀기 등의 기본적인 마사지 기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발바닥, 발목, 다리 등에 다양하게 자극한다. 발마사지 기법으로는 수낙법, 수양법과 흡입법, 천연오일 마사지, 12가지 기구요법, 율동법, 족심법, 기고타법 등 여러 방법이 있다(원심도 기마사지, 2003.07.13).

족부사는 발의 통증이나 근육의 강직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기를 사용하는 등 발의 질병이나 불편한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모든 방법으로 불편한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체형 교정을 통해 몸을 건강하고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의학적 시행도 많이 시행한다(국제족부사협회, 2012).

이처럼 발에 관련된 처방도 정확한 정의나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는 관련 기술간 교류나 표준적 기

술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식(독일) 풋케어, 중국발관리, 태국발관리, 베트남발관리 등까지 약간의 방식이나 순서차이에 따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바디존 발마사지라 하여 전문 카이로프락틱(Chiropractic)과 한방이 결합한 방법으로 발마사지는 물론 척추와 허리 디스크를 위한 물리치료와 한방치료까지 같이 시행하는 방법이다(코리아타임즈, 2010.04.22). 바디존 발마사지를 이런 방식으로 서술한다면 다른 발마사지와 유사성과 차별성, 특징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중국발마사지는 한방에서는 발이 온 몸의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압을 핵심으로 한다. 즉, 지압사들이 직접 발을 마사지하여 몸의 피로를 풀어주며 약물을 사용한다.

푸스플레게(Fuss-Pflege)는 유럽과 독일에서 발전되고, 독일에서 일반화된 ‘발 관리 기법’으로서, 발 전문도구와 기계를 이용하여 발의 피부와 발톱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분야이다. ‘미용학적관리’와 ‘의학발관리’의 ‘중간적 개념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발관리는 발마사지가 아닌 발톱깎기, 발톱다듬기와 발톱 홈 청소 및 발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 이를테면 차가운 발, 열나는 발, 굳은 각질제거, 갈라지는 발뒤꿈치, 티눈 제거, 파고드는 발톱, 발톱무증, 그리고 발가락 교정 등을 전문적인 차원에서 발관리 크림, 손작업도구, 발관리 기계 등을 이용하여 관리해 주는 것이다(강경호, 2006: 155-161).

발마사지의 경우만 하더라도 발생지역과 방법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구와 처방을 위한 상호 정보소통이 부족하고, 결국은 상생적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피부미용의 시행부위별, 사용 용품별, 기술발상지별, 기술개발자 별도의 피부관리 종목으로 타기술에 대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 개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피부미용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조사하고 이를 하나의 독립적 체계에 의해 개념을 정의하고 이 정의를 통해 각 기술(분야)간 유사 및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객체지향적 방식을 통한 개념 정의 방법을 제안한다.

제 3 절 피부 미용 개념 정의

피부미용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부관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말은 에스테틱(esthetic), 코스메틱(cosmetik), 마사지, 테라피 등이다.

에스테틱(esthetic)이나 코스메틱(cosmetik)이 의미하는 피부미용은 두 발을 제외한 얼굴 및 전신 피부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며, 얼굴과 신체 미용상의 문제점들을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핸드 테크닉 및 피부 미용기기를 사용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전신 미용술을 의미한다(김명숙, 2006: 130). 에스테틱이란 말은 약 200년 전 독일의 미학자 바움가르텐(Baumgarten)이 ‘미는 인간에게 만족도와 쾌감을 주는 대상이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감성의 미학적 차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차영애 외 4명, 2001: 15). 프랑스어인 esthetique에서 유래되었으며 원래 ‘미의’, ‘심미적인’, ‘조화된 아름다움’이란 의미를 내포하나 오늘날 피부미용의 의미로 사용된다. 에스테틱은 미의 형태와 본질에 관계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스킨케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연령, 계절, 환경 등 내.외적 요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비롯한 전신의 건강상태를 개선하여 생리작용을 정상화시키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예술인 동시에 과학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장원정, 2004: 6).

마사지의 어원은 기원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으나 고대 그리스어 Masso에서 유래되어 오늘날 Massage란 단어로 변형된 것이며 그 뜻은 ‘문지르다’, ‘반죽하다’, ‘쓰다듬다’에서 원시시대부터 손으로 아픈 곳을 쓰다듬고 문지르는 등의 동작을 행함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질병을 치료했던 행위에서 출발해 지금의 피부미용 마사지에 이른 것이다. 피부미용 영역에서는 마사지가 화장품을 매체로 하여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고 동작

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이혜원, 2009: 22).

테라피(Therapy)는 ‘요법’이라는 뜻으로 심신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간접 치료 방법들을 통칭하는 의학용어이다. 피부미용에서는 피부관리사가 하는 일의 전반을 “테라피”라고 할 수 있다.

약물치료나 수술 같은 직접적인 질병 치료 방법은 한계가 있고 심신에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전통 치료 요법의 효과를 증폭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보조수단들, 예를 들어 비타민 복용이나 음악 치료가 모두 테라피의 범주에 들어간다. 건강과 마찬가지로 미용도 몸의 상태가 최상이 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테라피가 적용될 수 있다. 테라피가 의학 쪽에서 먼저 시작되긴 했지만 마사지나 스파 등 최근 유행하는 테라피들이 뷰티 테라피에 포함된다(에듀킨아카데미, 2010.10.25).

피부관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마사지, 경락마사지, 스파, 근막마사지, 슬리밍마사지 등이 있는데, 마사지는 근육을 주무르고 문지르며 두들기는 안마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경락은 우리 몸에 흐르는 기의 통로로, 내부 장기와 연결된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현상을 표현하는 영역으로, 모든 경락은 대칭을 이루며,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순환시키며, 이것은 즉 마음의 상태와 직결된다. 경락은 인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기혈이 흐르는 통로로서 인체의 내외를 순행하여 각 조직과 장기에 긴밀한 연관을 이룬다. 즉, 경락이란 것은 전신에 두루 분포하여 인체 음양, 기혈, 진액의 통로가 된다.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이 통로를 마사지하여 자극함으로써 개개의 장부에 보다 나은 영향을 준다.

스파(Spa)는 본래는 물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질병치료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의미가 마사지를 포함하여 미용분야까지 확대 되었다(네이버 두산백과사전, 2012). 물을 이용한 건강 증진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하이드로테라피(Hydro Therapy)는 1950년대에 들어 각종 질병의 치료에 물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다. 스파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피부관리 및 전

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수압과 수류(水流)를 이용하고 건강한 아름다움과 비만을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 등 폭넓은 분야에 적용된다(이혜원, 2009: 25-26).

근막 마사지는 근막 구축에 가해진 부드럽게 늘리는 힘은, 열과 영향을 받는 부위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 시키는 혈관 운동반응을 유도하고 , 유독한 대사 폐기물의 임파적 배출을 증진 시키며, 근막 평면은 재배열하고, 가장 중요한 작용인 연부조직의 고유 감각기전을 바꾸어 놓는다. 이중 마지막 작용은 중추 신경계를 다시 프로그램화하여 과거의 통증 패턴이 유도됨이 없이 정상적인 운동범위로 기능 하게 만든다. 목표는 근막구축들을 제거하고 신체의 평형상태를 회복시키는 데에 있다. 구조가 균형된 상태로 회복되면 신체는 중력에 맞게 재배열 된다. 이런 목표에 도달 하게 되면 신체는 자기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자기 회복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최적의 기능과 극소량의 에너지 소비로 본래의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병행하고 있는 증상 위주의 치료의 효과도 높여 주는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단순히 피로회복 차원이 아닌 인체 해부생리에 기초를 두어 조직의 깊은 부분에 관여 하는 마사지법으로서 , 일반적인 마사지 요법보다 혈액순환과 림프 순환을 현저히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완화와 통증완화, 관절의 움직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마사지이다.

슬리밍 마사지(slimming massage)는 딱딱하게 경직된 셀룰라이트를 부수고, 슬리밍 마스크를 이용한 열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지방세포들의 분해 대사를 돕는데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자이요가(shmnoopy), 2010. 03.24.).

제 4 절 피부 미용 분류

피부 미용 관련 분야의 서비스 종목명의 명명 근거를 조사한 결과 몇 개의 규칙을 찾을 수 있었다.

4.1 도구(재료) 및 서비스

- 1)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 2) 워터테라피(Watertherapy)
- 3) 핫스톤 마사지(Hotstone massage) : 화산암(돌), 인디언이 시작
- 4) 허브 볼 마사지(Herb ball massage)

4.2 발생지(창시자, 시대) 및 서비스

- 1) 중국마사지(China massage)
- 2) 타이마사지(Thai massage)
- 3) 스웨디시마사지(Swedish massage)
- 4) 발리마사지(Balii massage) : 인도의 아유베르다를 기원으로 함
- 5) 일본마사지(Japan massage)
- 6) 에살렌마사지(Esalen massage) : 미국 에살렌연구소, 스웨디시 마사지 기반으로 요가 명상 등 심리적 요소 가미

4.3 부위 및 서비스

- 1) 속눈썹연장술, 눈썹문신, 입술문신
- 2) 안면교정
- 3) 림프마사지(Lymph massage)
- 4) 경락마사지
- 5) 두피관리

4.4 학문(이론) 및 서비스

- 1) 아유베르다 마사지(Ayurveda massage) : 인도의 전통학문, 철학, 생명과학, 치료(정진성 외 3인, 2009: 26-27)

4.5 연상어 및 서비스

- 1) 로터스테라피(Lotustherapy) : 연상과 추구하는 이미지를 묘사-연꽃이 주는 동양적 이미지와 천연재료(이동자, 2012: 8-10)
- 2) 로미로미마사지(Lomilomi massage) :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 기법과 다양한 마사지테라피로 약초와 화산돌을 활용한 수기마사지(주물러닷컴, 2011.09.28)
- 3) 사이코테라피(Psychotherapy) : 신체와 정신(명상) 생리 등과 사진요법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어드바이스 치료요법 (불교상담대학동문회홈페이지, 2009.12.01)

4.6 목적 및 서비스

- 1) 체온면역(體溫免疫) 테라피(therapy)
- 2) 아토피케어(Atopycare)
- 3) 비만관리((肥滿管理)
- 4) 여드름치료

4.7 발생지(창시자, 시대) 및 부위와 서비스

- 1) 독일발관리(Fuss-Pflege)

4.8 기타

- 1) 리포사지(Lypossage) : 근막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의 체형관리 (최고피부관리사홈페이지, 2011.12.26)
- 2) 고비도(Kobido) : 일본 웨이스 마사지의 현대적인 웨이스 기법에 전통적인 동아시아 마사지 기법을 결합시킨 마사지

(퀵마사지홈페이지, 2010.06.15)

3) 샤쥬 : 일본마사지의 한 종류로 자연요법적 건강유지법

(조아요닷컴, 2011.08.11)

이와 같이 종목이나 서비스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들의 명명 근거는 어떤 체계에 의해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누군가에 의해 명명되고 통용되다 보니 굳혀진 용어라 할 수 있다. 일상 생활 언어에 사용되는 단어는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나, 학문분야의 전문화된 용어는 정보 소통과 지식의 축적을 위해, 규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 이미 전문 용어로 굳어진 단어는, 생성 근거와 실제 의미를 분석하여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피부관리에 대한 분류는 분류자(기관, 단체)의 업무 목적에 따른 일차원적인 [표 1]과 같이 아날로그식 분류이다.

법령에 의한 업종분류로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종합미용업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를 세부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공중위생관리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가이드를 보면 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으로 분류하고, 국세청 관점에서는 피부관리 중심 영업인지, 화장품판매가 주영업인가를 매출액에 따라 피부관리(일반과세), 화장품(간이과세)로 분류하고 있다. 또 처방 행위의 주체가 의사나 피부관리사냐에 따라서, 미용이 목적이냐 치료가 목적이냐에 따라 임상적 피부관리와 일반피부관리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 1] 아날로그식 표현과 디지털식 표현

	아날로그식 분류 및 표현	디지털식 분류 및 표현
1. 관점	주관적 관점	객관적 관점
2. 표현 주관자	서비스 시행자	서비스 내용
3. 항목 경계	분류 항목과 한계가 불분명	분류 항목과 한계가 분명
4. 현재방식	너무 포괄적 내용 포함	내용이 단순하고 세분화
5. 표현 규칙	표준적 기준 제정 어려움	표준적 기준 제정 용이

처방목적으로는 트러블관리, 수분관리, 자외선관리, 기능성관리 등으로 분류하며, 일반 샵의 마케팅 전략상 처방 주종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관리 대상과 목적을 나타내며 비만관리, 두피관리, 피부관리, 여드름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시행형태와 재료의 사용 종류에 따라 스파, 아로마, 스킨, 팔사 등으로 구분한다.

이 밖에 어떤 단일한 특징에 의한 분류는 아니지만, 각 협회의 관장 분야에 따라 여러 형태의 서로 다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발관리의 예를 발관리 단체에 따라 시행방법, 유래, 목적에 따라 일반발반사, 발마사지, 족부사, 독일발반사, 발기공, 중국발맛사지 등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분류를 여러 관점에서 분류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적인 분류이다. 즉 아날로그식 표현은 한 관점에서의 일차원적 서술하는 표현이라면, 디지털식 표현은 구분하는 특징 하나하나의 항목을 하나의 표현 차원이 되어 다차원적인 표현이 된다.



제 5 절 서비스 종목의 특징 표현 위한 속성

현재의 분류방법이나 각각의 서비스에 의한 정의는 [표 1]과 같은 아날로그식 표현이다. 모든 표현을 개괄적으로 종합한다면 피부관리의 범위나 처방 방법, 목적이나 특징을 이해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로테스테라피는 현행 방식의 표현은 ‘본래의 의미는 연꽃이 주는 동양적 이미지와 천연재료를 의미하는데, 이는 동양철학과 의학, 동양적 천연재료로 가공한 재료를 이용하는 마사지이다. 원적외선 등 유용한 성분이 나오는 로터스도자기를 이용해서 오행과 신체의 한방원리를 이용해 경락을 맞사지하고 오행체질에 맞게 자연채 등을 섭생시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하는 피부관리이다(이동자, 2012: 8-10). 또한 아유베르다 마사지는 인도의 전통학문과 철학을 바탕으로 생명과학적 연구로 육체 치료는 물론 정신적 치유를 위한 마사지라고 한다면 확실한 개념을 그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면 피부관리에 관한 여러 형태의 피부관리에 관한 기준과 분류, 상호관계성을 알 수 있고 객관적인 기준하에서의 명확한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비스 종목의 특징이 무엇이며, 시술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술에 첨가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시술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학문의 지식 구축에 유리하다. 또한 고객 관점에서는 가격에 대해 알고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관리사와 고객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 처방 행위에 대한 법률적 시비도 줄일 수 있어 현실과 법률의 괴리에 의한 법적 행위에 노출된 피부관리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처방 주체와 행위의 방법과 차별화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다른 직업군과의 갈등을 없애고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로테스테라피를 정의할 때 사용기구, 마사지대상, 원리, 동작 등 항목(속성)별 구체적인 값(속성값)을 명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더 명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주관적이고 분류기준이 다소 모호한 아날로그식 분류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여러 관점과 기준에 의한

다각도의 체계적 분류가 요구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객체지향적 디지털 분류로 표현하고자 한다.

현재 각 서비스 종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5.1 부위적 관점

신체의 어떤 부분에 처방할 것이냐의 관점

- 1) 두피(肚皮, 頭皮)
- 2) 얼굴
- 3) 전신(복부, 등, 다리, 팔)
- 4) 발 반사(反射)
- 5) 손(네일)

5.2 시술적 관점

처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관점

- 1) 맨손: 마사지, 근막
- 2) 스파(spa) : 분말, 거품, 아로마, 해수, 천연(사과, 식초)
- 3) 화장품
- 4) 운동
- 5) 섭생(攝生) : 차, 생식, 다이어트
- 6) 기구사용(약품포함)
- 7) 필링(peeling)

5.3 치유적 관점

특정 부위나 확연하게 표출된 트러블 해결이 우선인가의 관점

- 1) 족관리 2) 얼굴축소 3) 산모복부관리 4) 뱃살빼기

5.4 도구 방법적 관점

처방 행위 중에 사용해야 하는 도구와 재료

- 1) 아로마 2) 화장품 3) 스파 4) 접시 5)테이핑
- 6) 제이드(옥스톤) 7) 금테라피

5.5 목적별 관점

처방 행위의 주목적(세분화 필요)

- 1) 단순미용
- 2) 특정 부위 치유적 목적
족관리(足管理)
- 3) 부위보강(部位補強)
속눈썹 연장(延長)
타투(tattoo) : 미용 문신
문신 : 눈썹 문신
네일아트(nailart)
- 4) 비만관리(肥滿管理)
- 5) 비대칭(체형)관리
- 6) 여드름치료
- 7) 분장(扮裝)
- 8) 혈액순환(血液循環)

5.6 보조환경적(부가적) 관점

처방을 위해 갖출 환경(環境)

- 1) 뮤직테라피
- 2) 색채(칼라)테라피
- 3) 명상테라피

5.7 연계적 관점

문제가 생긴 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자극하거나 차 등을 먹는 등
직접적 행위가 아닌 간접적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함

1) 부위(반사구 이용, 상쇄유돌근으로 여드름과 붓기 완화)

처리 : 발 -> 결과 : 얼굴

2) 행위

섭생(攝生) -> 결과 얻기, 위 나빠 여드름 생긴 것,
변비로 피부트러블

여기서의 분류관점이 속성이 되고 분류별로 나열된 항목들이 속성값 또는 하위속성이 된다. 명확한 개념정의를 위해서는 서비스 특징별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고 이 분류에 의해 속성과 속성값이 추출된다. 분류가 세분화 되어 단계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



제 6 절 객체지향적 표현을 이용한 피부관리의 개념 정의

6.1 객체지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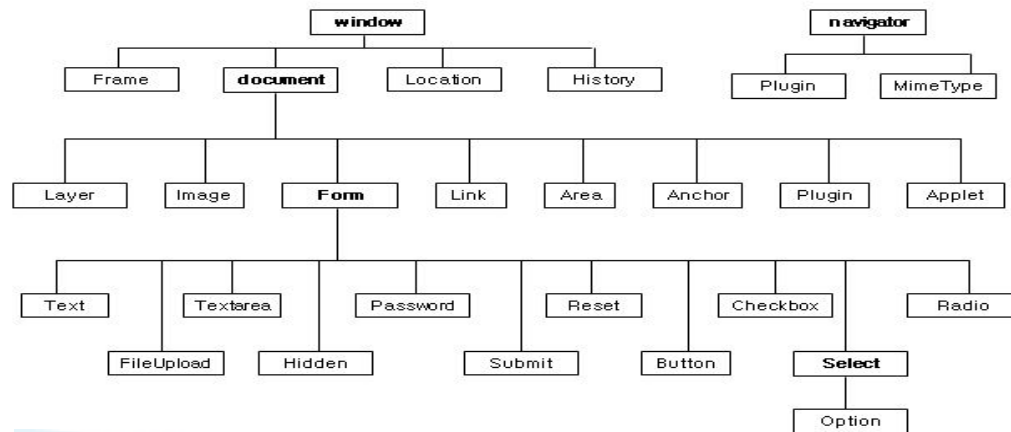
객체 지향의 개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클래스, 객체, 속성, 메소드, 이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클래스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OOP)에서 객체 내부의 데이터 구조와 그 조작을 정리하여 정의한 것, 동일한 속성, 오퍼레이션, 관계 등을 갖고 있는 객체들의 집합을 나타낸 것이다. 즉 객체를 생성하는 틀로서 클래스에서 나오는 하나하나가 객체가 된다.

객체지향 방법이란 실존적 물체나 추상적 개념(물질명사) 등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고 이 실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 실체의 바라보는(구별하는, 묘사하는) 관점을 각각의 항목(속성)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에 이 실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속성값)을 할당함으로써 그 실체가 가지는 종합적 특성을 통해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객체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쉽게 형상화할 수 있도록 이름과 특징을 붙여 놓고, 실제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그 이름만 가지고도 객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처리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이름만한 주요 개념이다(유홍준, 1997: 27-30). 객체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구성요소인 상태(값)와 행위를 가진다(Ramez Elmasri, Shamkant B. Navathe 공저, 2008: 637-638). 사람의 경우, 운다, 먹는다, 잠잔다, 숨쉴다, 걷는다 등의 동작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행위 즉 메소드라고 한다. 메소드(method)는 객체의 동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체적 특성을 가지는 손, 다리, 배, 눈 등과 다른 객체와 구분을 지어주는 키, 나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속성이라 한다.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인터넷 정보를 객체지향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웹브라우저를 포함한 웹 문서의 모든 구성요소를 각각의 객체(object)로 설정한다. 즉, 웹브라우저의 상태표시줄, 스크롤바, 웹문서 자체,

레이어, 하이퍼링크, 이미지, 폼, 버튼 등의 구성요소를 객체라 하고, 객체 안에 포함된 각 부분을 별도로 하위 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방식임으로 객체구조를 계층적구조라 한다.

인터넷 정보가 나타나는 브라우저를 객체들의 계층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1> 이다.(마을, 2006.12.29)



<그림 1> 윈도우의 객체지향적 구조

최상위에 Window와 독립적 객체인 Navigator가 있다. Window객체 아래로는 Frame, Document, History, Location객체가 있으며, Document객체의 아래로는 Layer, Image, Form, Link, Area, Anchor, Applet 등이 있고, Form객체의 아래로는 Text, FileUpload, Textarea, Hidden, Password, Submit, Reset, Button, Checkbox, Select, Radio 객체가 있다.

모든 객체는 속성(Property)을 가지는데 속성은 객체의 특징을 설명하는 요소(항목)가 된다. 객체마다 모두 같은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며 속성의 개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window 객체의 경우 프레임(frames), 윈도우 이름(name), 위치(location) 등의 속성을 가지며 이미지 객체는 가로크기, 세로크기 등의 속성을 가진다. 객체와 속성, 객체와 메소드를 연결 할 때에는 (.) 으로 연결한다.

객체로 표현하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웹문서의 배경색상을 청색으로 하려면 이 웹문서의 배경색 속성에 청색이라는 속성값을 할당하면 된다.

정보가 나타날 웹브라우저의 객체와 속성으로 정의하면 Window.document.bgColor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document는 Window에만 포함된 고유의 부분객체이므로 상위객체인 Window를 생략하고 document.bgColor 로 단순하게도 표현할 수 있다. 속성과 속성값과의 관계 표현은

객체.속성="속성값" 로 정의되므로, document.bgColor="blue" 로 최종 표현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태줄에 어떤 글자(예, 뷰티에스테틱)가 나타나게 하려면, Window.status = '뷰티에스테틱' 로 정의해 주면 된다.

또 웹브라우저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를 나타나게 하려면, document.Write("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로 표현한다. 이때 Write 동작 행위인 메쏘드가 된다.

6.2 객체지향적 표현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려면, 명명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아날로그식으로 명명하고 분류한 단점을 보완하여, 여러 관점과 기준에 의한 다각도의 체계적인 명명과 분류를 위한 효율적인 규정이 요구되는데, 이를 객체지향적인 디지털적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보의 함축과 서비스별 특징을 구분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피부미용의 범주에 속하는 서비스를 객체라는 이름으로 형상화하고, 각 서비스 유형의 특징을 상태값인 속성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객체지향적 표현 모델을 이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표 2]를 보면 기존정의 방식에 비해 객체지향적인 방식이 '로터스테라피'에 관해 명확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피부미용이라는 포괄적 정의를 하나의 객체형(타입)으로 정하고, 피부미용이라는 개념 속에서 실제 행해지는 피부관리, 두피관리, 네일아트, 독일꽃케어, 스웨디시 마사지, 금테라피 등 실질적인 처방 하나하나를 객체로 형상화한다. 이 형상화된 객체를 각

각의 분류 관점에서 속성이라 하고 그 처방(서비스)이 갖는 특징을 속성값이라 한다.

[표 2] 기존정의방식과 객체지향정의방식

	기존정의방식	객체지향정의방식
관점	주관적	객관적
항목	별도 구분 없음	장소, 행위자, 시술법, 부위, 사용도구 등 표현관점이 하나의 항목
로터스테라피	본래의 의미는 연꽃이~(중략)자연채 등을 섭생시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 지하는 피부관리	장소-피부관리샵 행위자-피부관리사 시술법-마사지 부위-전신 사용도구-도자기

6.3 객체지향적 형식의 피부관리 표현

피부미용이라는 객체들에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각종 관리 형태나 종류를 각각의 실질적인 객체로 정의하고 각 관리를 구분하거나 특징을 표현할 관점을 속성으로 정의한다. 속성으로 표현되는 관점을 구체적인 값을 정해서 피부관리의 여러 종류 분류와 서비스별 유형의 특징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한다(유홍준, 1997: 75-78).

개념적 표현 어휘인 ‘피부미용’을 객체적 정의에 의해 논리적으로 표현하자면, 먼저 객체와 속성, 속성값 등이 정의 되어야 한다.

객체 = {피부관리, 네일아트, 독일풋케어, 스웨디시마사지, 금테라피}

예) 객체 $\ni$ 피부관리, 객체 $\ni$ 네일아트, 객체 $\ni$ 독일풋케어

속성 = { 정의, 처방범위, 장소, 행위자, 시술법, 부위, 사용도구, 개선, 목적, 보조환경, 부위처방연계}

예) 속성 $\ni$ 정의, 속성 $\ni$ 처방범위, 속성 $\ni$ 장소

속성값(장소) = { 샵, 병원, 가정집, 목욕탕, 노천, 체육관 }

예) 속성값(장소) $\ni$ 샵, 속성값(장소) $\ni$ 병원

속성값(행위자) = { 피부관리사, 의사, 약사, 일반인 }

예) 속성값(행위자) $\ni$ 피부관리사, 속성값(행위자) $\ni$ 의사

속성값(부위) = { 전신, 복부, 등, 팔, 다리, 발 }

예) 속성값(부위) $\ni$ 전신, 속성값(부위) $\ni$ 복부, 속성값(부위) $\ni$ 등

또한 동작 행위도 있어야 한다.

동작 행위 = { 문지르다, 바른다, 누른다, 담근다 }

예) 동작 행위 $\ni$ 문지르다, 동작 행위 $\ni$ 바른다, 동작 행위 $\ni$ 누른다

이것을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도 있다.

[표 3] 피부미용 정의를 위한 객체와 속성 및 속성값

항목	값(표현 요소)	
객체	피부관리, 네일아트, 독일풋케어, 스웨디시마사지, 금테라피	
속성	정의, 처방범위, 장소, 행위자, 시술법, 부위, 사용도구, 개선, 목적, 보조환경, 부위처방연계	
속성값	장소	샬, 병원, 가정집, 목욕탕, 노천, 체육관
	행위자	피부관리사, 의사, 약사, 일반인
	부위	전신, 복부, 등, 팔, 다리, 발
동작 행위	문지르다, 바른다, 누른다, 담근다	

여기에서는 정보처리 분야의 객체지향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피부미용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동작 행위 이전과 이후에 대해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6.3.1 속성 표현 형식

피부관리.정의 =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육체와 정신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고자 피부가 싸고 있는 전신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행위“

피부관리.처방방법 = “마사지, 도포”

피부관리.부위 = “전신”
피부관리.장소 = “샵”
피부관리.행위자 = “피부관리사”
피부관리.사용도구 = “스톤”
피부관리.개선 = “보습, 혈액순환”

6.3.2 행위 표현 형식

피부관리.문지르다
피부관리.쓰다듬다
피부관리.반죽하다
피부관리.두드리다
피부관리.떨다
피부관리.누르다(압을주다)
피부관리.화장품바르다

또한 속성이나 속성값으로 사용되는 샵의 기준(크기, 환경 등), 스톤 등을 하위객체나 속성을 정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사용도구의 속성값으로 스톤을 정하고, 스톤의 재질, 크기 등의 속성값을 정의하여, 사용도구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라는 속성값을 통해 일반적 피부관리는 샵에서 행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앞의 내용은 일반적 피부관리의 특징을 객체지향적 표현을 한 예이다.

만약 임상적 피부관리를 표현하면

임상적피부관리.행위자 = “의사, 한의사”
임상적피부관리.목적 = “기미 제거”
임상적피부관리.장소 = ‘병원, 한의원’
임상적피부관리.사용도구 = “IPL, 레이저”

임상적 피부관리와 일반적 피부관리의 구분은 행위자와 장소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며, 목적과 사용도구에서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피부미용의 종류별 특징을 속성값으로 표현한다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속성에 따라 속성값으로 정확하게 표현되고, 각 종류별 객체로 표현되어 객체의 상하 포함관계와 연관성을 통해 각 종류에 포함되는 여러 특징의 동일성과 차별성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피부미용의 유형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계수적으로도 표현 가능하고 개인별 기관별로 수행되는 처방에 대한 표현이 객관적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어 각 서비스의 규격을 정하면서도 각 서비스별 고유 특성을 침해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별 가격 설정, 기술적 평가에서 공통적인 부분과 고유적인 부분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



제 4 장 결 론

피부관리, 복부관리, 아로마테라피, 발만사, 네일아트 등 피부미용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 객체로 형상화하고, 이 객체의 특징을 구분하는 항목을 속성으로 표현하여, 이 속성마다 속성값을 부여해서 설명한다면 더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속성값을 비교하여 각 분야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구할 수 있고 결국 유사도를 계량화까지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작 유형으로 생긴 변화의 표현을 통해 피부관리로 행해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를 정확히 표현 할 수 있어 각 서비스별(분야별) 효용 가치를 고객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객체지향적 방식인 디지털적 관점으로 피부미용의 처방 방법을 정의하고 객관화시켜 상호 연관관계를 명확히 한다면 앞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전문용어를 이용한 피부미용학의 개념 정의와 분류를 분명히 할 수 있어 타 학문과의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통한 학문적 기술적 발전이 촉진 될 것이다.

둘째, 피부미용의 전반적 처방을 표준적 분류로 연결할 수 있어 피부미용학의 교과개발과 업종 분류에 기본적 바탕이 될 것이다.

셋째, 피부관리를 규제하는 법의 부당성을 바로 잡는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다차원적 관점(분류)에 의한 서비스 시행 기준표를 작성하여 피부관리를 시행할 경우 피부관리자들 간의 정보교환, 피부관리자와 소비자간의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고, 피부미용 처방에 관한 표준화 마련에 용이할 것이다.

다섯째, 피부미용이 올바르게 인식되고, 학문적 산업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피부미용법 제정, 고주파기 등의 미용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다.

여섯째, 피부미용과 관련 처방에 대한 범위와 시행방법, 효과목적을 항

목(속성)별로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 및 안마사 등과의 갈등, 피부미용인간의 업무 영역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곱째, 피부미용 각 개념을 객체로 표현하여 객체의 상하 포함관계와 연관성을 통해 피부미용 모든 분야의 처방적 관점에서 유형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계수적으로도 표현 가능할 것이다.

여덟째, 객관적 관점에서 표준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 각 처방 영역의 표준적 규격을 규정지을 수 있고 영업 현장에서의 가격 설정, 기술적 평가에서 공통적인 부분과 고유적인 부분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분야의 정의를 객체지향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그 실례를 통해 이러한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후속 연구로 피부미용 각 분야의 필요 속성을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추출해서 선정하는 연구, 속성값의 비교를 통한 각 서비스간의 유사도 산출 연구, 피부관리 동작 유형에 따른 효과 표현 방안 연구, 피부미용 각 서비스의 표준화 연구, 미용 자격시험을 위한 실기 기준의 객체지향적 표현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여 여러 연구 성과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피부미용 전 분야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부미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경호(2007). 『발건강관리』, 서울: 청구문화사.
- 김기연(1993). 『피부관리학』, 서울: 수문사.
- 김명숙(2006). 『피부관리학』, 서울: 현문사.
- 김무영(2004). 『(최신)미용 용어집』, 서울: 훈민사.
- 김유정 편저(2001). 『이론과 실제 피부관리학』, 서울: 현문사.
- 김주덕 외 5인(2004). 『신화장품학』, 서울: 동화기술.
- 김창환(2001). 『학과(전공)분석 및 학과(전공)분류체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피부과학회 용어집편찬위원회(2006). 『피부과학용어』, 서울: 대한피부과학회.
- 안성구, 이승헌(2002). 『피부미학』, 서울: 고려의학.
- 유홍준(1997). 『객체지향 개념』, 서울: 도서출판 홍은.
- 이동자 편저(2012). 『살롱트리트먼트 로터스테라피』, 서울: 로터스교육센터.
- 이재형, 송인영 편저(2002). 『미용과학 용어 연구(Cosmetical terminology self-learning text)』, 서울: 현문사.
- 이정옥(2002). 『피부미용학 개론』, 서울: 학문사.
- 정영현(2010). 『직업훈련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정진성 외 4인(2009). 『테라피스트를 위한 아유르베다』, 경기: 성안당.
- 차영애 외 4인(2001). 『피부관리학』, 서울: 훈민사.
- 하병조 외 4인(2002). 『화장품화학』, 경기: 수문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1999). 『표준화정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연구소.
-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2003). 『뉴에스테틱』, Vol. 58, 서울: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
- 황규영외 5인 역(2008). 『Ramez Elmasri, Shamkant B. Navathe 공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5판3쇄)』, 경기: 도서출판 ITC.
- 황정원(1998). 『피부관리학』, 서울: 현문사.

2. 국내 학술지

- 강경호(2006). 「발 관리에 대한 비교연구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Vol.1, No.1, pp. 155-161,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
- 강호정(1993). 「수종의 피부질환에서 피부 각질층의 보습기능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Vol.31, No.6, pp. 890-895, 대한피부과학회.
- 고혜정(1996). 「20대 여대생의 외제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피부적 합성 비교연구」, 『한국미용학회지』 Vol.2, No.1, pp. 61-78, 한국미용학회.
- 김경실(2005). 「동양 미용 문화의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Vol.6, No.3, pp. 147-162, 한국인체예술학회.
- 김광수(2002. 12). 「한국어 전문용어의 유형 분석」, 『전문용어연구4』 p. 152, KORTERM(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김문오(2001. 11). 「전문용어와 고유명사의 상관관계」, 『전문용어연구3』 pp. 3-4, p. 11, KORTERM(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김문주(2000). 「김천대학 신입여대생들의 거주지에 따른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행태 조사연구」, 『김천대학논문집』 Vol.21, p. 124, 김천대학 출판부.
- 김봉인(1999).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Vol.5, No.1, pp. 123-166, 한국미용학회.
- 김재현 외 3인(2010). 「미용향장 용어의 한글화 구축 시도」,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Vol.6, No.1, pp. 23-29,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 김정희, 정원정(1999). 「여대생들의 피부유형에 따른 식이섭취 실태조사 및 혈장 생화학적 성분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Vol.4, No.1, pp. 20-29,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 김천상(1992). 「한국인 피부표면 지질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Vol.30, No.1, p. 47, 대한피부과학회.
- 박미성, 서문자(1995). 「손마사지가 방사선 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Vol.25, No.2, pp. 316-329, 대한간호학회.
- 박형익(2001. 11). 「정보 분류와 전문용어의 분류」, 『전문용어연구3』, pp. 120-122, KORTERM(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백지원(2002). 「용어분류의 비교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9, pp. 19-26, 한국정보관리학회.
- 양현옥(1995). 「피부관리를 위한 맛사지 지압경혈에 관한 고찰」, 『수원여자전문대학논문집』 Vol.21, p. 87, 수원여자전문대학출판부.
- 유정아 외 3인(2010). 「귀온열 요법과 귀마사지가 뇌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8, No.3, pp. 91-103, 대한피부미용학회.
- 이성내(2003). 「기기를 이용한 여드름 관리법의 사례-초음파 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1, No.2, pp. 61-69, 대한피

부미용학회.

이수빈, 박철호(2011). 「미용대학원 박사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Vol.7, No.2, pp. 199-210,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이승현(1995). 「사람 피부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피부장벽 손상 후 회복을 및 피부표면 지질조성의 차이」, 『대한피부과학회지』 Vol.34, No.1, pp. 38-45, 대한피부과학회.

이한웅, 이유미(2010). 「미용사 면허제도 한·일 비교」,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8 No.1, pp. 273-288, 대한피부미용학회.

정보연, 김은화(2010). 「피부미용실에서의 피부미용기기 사용 실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8, No.1, pp. 155-164, 대한피부미용학회.

정진철(2008). 「직업교육학의 학문분류체계 개발, 직업 교육 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지』 Vol.27, No.2, pp. 161-195, 한국직업교육학회.

조은경, 서상규(2001. 11). 「전문용어와 전문용어 말뭉치」, 『전문용어연구2』 p. 202, KORTERM(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차의진, 안홍석(2011). 「한국과 독일 및 영국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비교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9, No.3, pp. 141-151, 대한피부미용학회.

채수형 외 2인(2007). 「발마사지가 혈액순환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20대 남, 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5, No.1, pp. 115-121, 대한피부미용학회.

최기선(2000). 「전문용어와 센터의 역할」, 『전문용어연구1』 pp. 14-15, KORTERM(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최정희(2000). 「의학분야의 문헌분류체계 연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지』 Vol.27, No.1, pp. 9-58,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홍재기(2009). 「분과학문으로서 피부미용학의 학문적 영역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7, No.4, pp. 385-395, 대한피부미용학회.

3. 정부문서

법제처(<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2.12.07)

한국산업인력공단(2011), 국가기술자격시험 미용사(피부) 발표자료.

4. 국내논문

강성희(1995). 「의미 구조를 갖는 시소러스의 지식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수경(2004). 「중년여성의 안면피부상태와 관련요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연수(2000). 「미용기능사 국가기술 자격검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동덕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영미(2009).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미용산업 경영동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세영(2003). 「토픽맵을 이용한 이기종 상품분류체계 온톨로지 통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혜정(1997). 「흡연과 피부표면 수분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덕성(2000). 「미용기술기능사 국가기술 자격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덕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훈(2012). 「미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민정(2006). 「남성피부미용사 역할에 관한 연구 : 20대 남성의 복부관리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수(2002). 「국내외 건설정보분류체계의 비교연구 : (지하철공사 정보분류 응용사례)」,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상인(2008). 「음악 장르와 피부관리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경(1994). 「한글 구문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객체 정의 방법과 지원도구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향숙(2010). 「마사지가 피로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 경락마사지와 두 개천골 요법의 비교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혜신(2003). 「스웨디쉬 마사지를 이용한 안면피부 상태 개선 효과」,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인숙(2006). 「음악요법이 기관지내시경 검사 대상자의 불안과 불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연옥(2010).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명은진(2001). 「20, 30대 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혜진(2012). 「특성화 고등학교 헤어 미용 교과서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분석」,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순(2006). 「수기요법이 피부표면 온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용부(2009).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

- 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현숙(2011). 「피부미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지원(2005). 「용어관계의 분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형식(2003). 「정보산업 분류체계 및 통합분석체계 수립과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희원(2003). 「한국 미용사 면허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현진(2008). 「여성들의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연숙(2004). 「미용사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민자(2005). 「고객만족을 위한 피부관리실의 서비스 방안 조사」, 중앙대학교 의학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보라(2009). 「미용사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숙(2007). 「수기 마사지를 이용한 안면 윤곽수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2009). 「여대생의 미의식에 따른 미용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피부 관리, 체중조절, 미용성형 행동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06). 「20·30대 여성의 피부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태도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희(2007). 「반신욕이 여성의 스트레스와 혈액성상 변화에 미치는 효

- 과」,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양(2008). 「하이드로 테라피와 스웨디쉬 마사지가 직장여성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2011). 「피부비만관리실 고객의 비만관리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2009).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인식 및 선호도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두석(2008). 「상품속성을 이용한 분류체계 자동 생성」,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순심(2007). 「등 마사지가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원정(2004). 「제주도와 수도권의 피부관리실 현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주현(2009).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유사도 검출 알고리즘」, 강원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원혜(2008). 「중년여성의 화장품 구매 형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두영(2009).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 문장 성분 분석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소명(2007).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피부관리가 여대생의 피부상태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구(1998). 「한국 미용 정책의 변천 과정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갈명(2003) 직장여성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광현(2004).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수경(2011). 「피부미용사 업무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모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비만미용향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의진(2011). 「한국과 독일 및 영국의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증 제도의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나홍(2007). 「사운드테라피의 스트레스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외숙(2011). 「피부미용사의 스트레스, 근무환경이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은영(1998). 「건강증진모델(HPM)에 기초한 여성의 피부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정(2009). 「한국 미용사 면허제도의 고찰과 국제적 조화 방안」, 동덕여자대학교 미용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국외문헌

Michelsen, D.(1978), Giving a Great Back Rub. *American J of Nursing* 7, pp. 1197-1199.

6. 기타자료

고혜정(2004.11). NaturalBeautyTherapy의 세계, 『Aespro 창간호』, Aespro.

콜근위뷰티(<http://cafe.daum.net/webeauty>, 등록일: 2011.08.10), “현 피부미용 시장규모와 실태”

국제족부사협회(<http://cafe.daum.net/ifafeed/>, 검색일: 2012.03.10).

네이버(www.naver.com/두산백과사전 검색일: 2012.03.10).

마을(<http://www.devpia.com/MAEUL/Contents/>, 등록일: 2006.02.29),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계층구조”

미용경영문화연구원(<http://cafe.daum.net/songpns>, 등록일: 2011.11.22), “뷰티산업진흥법 지지 1인 시위-선풍기 아줌마가 웬 말이나??”,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보건타임즈(<http://bktimes.net/detail.php?number=37276>), “뷰티산업진흥법 지지:국회 1인 시위 중”, 2011년 11월 17일 기사.

불교상담대학동문회홈페이지(<http://cafe.daum.net/bcu1>, 등록일: 2009.12.01), “미국심리치료 주류 급부상”

뷰티누리(<http://www.beautynury.com>), “피부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정의’ 신설해야”, 2011년 07월 27일 기사.

에듀킨아카데미(<http://cafe.daum.net/skincarekorea>, 등록일: 2010.10.25), “테라피란 무엇인가?”

에스띠안(<http://www.esthian.com/>, 등록일: 2009.04.20), “피부마사지협회, 복지부에 ‘무차별 단속 자제’ 진정서 전달”

원심도 기마사지(<http://cafe.daum.net/wonsimdo>, 등록일: 2003.07.13), “발마사지의 종류”

이투데이(www.ETODAY.CO.KR), “창업시장, 보떼슈머(Beautysumer) 타깃 업종 열풍”, 2007년 11월 26일 기사(박철근).

자이요가(shmnoopy)(<http://cafe.naver.com/jaiyoga>, 등록일 : 2010.03.24), “Slimming Massage(슬리밍 마사지)”

조아요닷컴(<http://zoayo.com/rb/?bid=av&m=bbs&p=9&uid=5922>, 등록일 : 2011.08.11), “마사지의 종류와 특징”

주물러닷컴(<http://www.jumuler.com>, 등록일 : 2011.09.28), “로미로미 마

사지란?”

최고피부관리사홈페이지(<http://cafe.daum.net/beautynbeauty>, 등록일:
2011.12.26), "Body & Soul - 리포사지"

코리아타임즈(<http://www.koreatimes.com>), “스트레스 날리는 시원한 발마
사지”, 2010년 04월 22일 기사.

퀸마사지홈페이지(<http://cafe.daum.net/queen221>, 등록일: 2010.06.15), “고
비도마사지”

한국발기공(<http://www.footeng.co.kr>, 검색일: 2012.03.10).



ABSTRACT

A Study of the Definition of Skin Cosmetic Treatment by Service Type

Kang, Chun Gu

Major in Beauty Esthetic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Skin cosmetic treatment is a field of study and healing method for health and beauty by caring for the skin using tools and hands. It has gradually developed along with human history because it is a basic instinct to keep the skin healthy and beautiful and achieve mental and physical satisfaction.

Recently, skin cosmetic treatment has developed in a scientific and systematic manner through objective experiments, and its industrial production has skyrocketed. As a result, a contradiction in the treatment of a particular group and the scope of the auxiliary treatment tools has occurred by ignoring fundamental aspects - R&D for the improvement of the academic value of skin cosmetic treatment, health and cosmetic efficacy. Depending on how skin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and what tools should be used, it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edical practice. Therefore, even skin care experts have

been limited in skincare prescriptions, which has been a barrier in the development of the skin cosmetic treatment industry. In addition, doctors have stipulated what skincare experts should do depending on how established medical practice views the situation. In legal and academic rul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scope and method of prescription practices.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termine how to clearly classify and define the domain of skin cosmetic treatment and prescription method, the classification of each prescription and the relationship and efficacy from an object-oriented perspective.

Key Words: Category of Skin Cosmetic Treatment, Classification of Skincare, Definition of Object-oriented Skin Cosmetic Treatment, Definition of Skin Cosmetic Treatment

